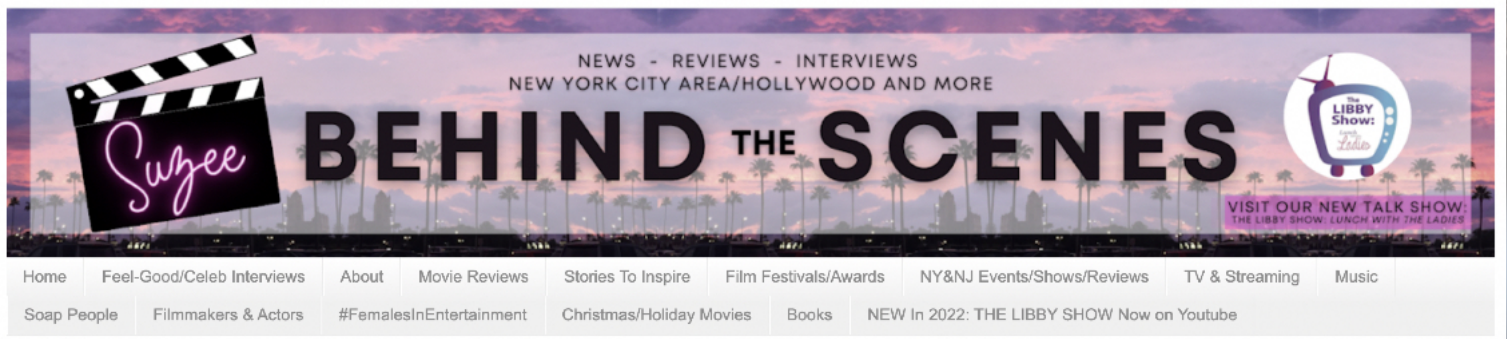


YOULIM NAM





Monday, October 17, 2022

Spotlight: Meet The Up and Coming Actors of New York's Axial Theater - Daniel Walworth, Marissa Lowe, Torian Brackett, Sandy Oppedisano and Youlim Nam



By Ashton Samson

Meet some of the ensemble cast members of New York's prestigious Axial Theater. Get to know Daniel Walworth, Marissa Lowe, Torian Brackett, Sandy Oppedisano and Youlim Nam.

The Axial Theater, lead by Artistic Director Cady McClain is a twenty-three year old ensemble based not-for-profit institution dedicated to supporting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theatrical voice through audience involvement and to presenting challenging, intelligent, and culturally relevant theatrical experiences. Visit their website to see what in-person plays they are featuring as well as their virtual events, like *Cactus Flowers* Play Readings, that can be accessed for free online.

Meet Youlim Nam

Youlim always loved singing and dancing on stage, even as a young child. Although she wanted to attend a performing arts high school, her very conservative Korean parents discouraged her, instead requiring that she find a real "job." Youlim did not give up, joining a theater club in high school and finally majoring in performing arts in college in Seoul.

She became involved with Axial when she was made aware that artistic director, Cady McClain was searching for an Asian actor for an upcoming play reading series. Working with Cady through the project, Youlim instantly sensed her extraordinary talent and wanted to collaborate with her more. She submitted some of her own original plays for review and was thrilled to learn that her play, *Last Birthday*, was selected for an Axial reading series and that she was cast in a role she had written.

Shortly thereafter Youlim became an ensemble member and recently performed in a film directed by McClain, Robust Admixture, a timely adaptation of the book, *Ceive*, by BK Fischer, which addresses climate change and the struggle to survive. To prepare for the role, Youlim watched many of Greta Thunberg's speeches and got in touch with a wide range of emotions, including deep compassion for mother earth. She is proud to be part of this film because she believes it can alert people to the severity of the climate crisis.

Additionally, Youlim participates in Axial's monthly reading series called *Cactus Flowers*. Her strong commitment to varied projects such writing, painting and filmmaking leaves her little free time, but when she does have a moment, she enjoys cooking, reading and spending time with loved ones. Although living in New York City is a creative inspiration for Youlim, she views spending time in nature as essential, because "You learn so much from our mother earth. Nature itself is art."

Visit: <https://www.axialtheatre.org/>

El Barrio's Artspace PS109 To Present Reading Of NEW YEAR'S DAY (SAE HAE) By Youlim Nam

The reading will be held on Monday, July 31st at 7:30 pm, in the black box theater at El Barrio's Artspace PS109.

By: Blair Ingenthron Jul. 16, 2023



New Year's Day (Sae Hae), a full-length play by Youlim Nam will be born onto the stage on July 31st, 2023.

El Barrio's Artspace PS 109 is presenting a staged reading of New Year's Day (Sae Hae) written by Youlim Nam, featuring Joonie Jang, Brian Yeun, Inmi Song Thomas, Jun Kim, Wonhee Kim, Flynn Byun, Sophy Drouin, Jazz Cardenas, Kashya Hardy, Pamela Rivera and Youlim Nam as an Artist in Residency Summer of 2023 at El Barrio's Artspace PS109.

The reading will be held on Monday, July 31st at 7:30 pm, in the black box theater at El Barrio's Artspace PS109. (215 E 99th St, New York, NY 10029) A post-show discussion of the topics of the play will follow with a moderator.

Hannah, a Korean-American high school girl, must decide between attending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or moving across the world to Seoul to become a K-pop star. As she attempts to resolve these two conflicting paths, something deep inside her cracks open: she begins excavating her complex relationship with her family as a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 who has never been to Korea.

Tickets are free, but seating is limited. To reserve a seat, visit: [Click Here](#).

<https://www.broadwayworld.com/article/El-Barrios-Artspace-PS109-To-Present-Reading-Of-NEW-YEARS-DAY-SAE-HAE-By-Youlim-Nam-20230716>

뉴욕한국문화원,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마련

4월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특별상영회, 링컨센터 한국 특집 공연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은 3월 15일 오후 한미동맹 70주년 해를 맞이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전시 "The Wonder Unbound" 오픈 리셉션을 대면행사로 개최했다.

1700년대부터 1960년대,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의 서양권 나라에서 기록되고 출판된 한국 관련 고서 120여권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이날 행사에는, 한미동맹과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살바도레 스칼라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뉴욕공공도서관 큐레이터 케빈 팩스, 그리고 소장가인 동덕여대 이승철 교수 등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문화원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The Wonder Unbound' 리셉션 기념 촬영. 왼쪽부터 김천수 문화원장, 뉴욕공공도서관 큐레이터 케빈 팩스, 살바도레 스칼라도 뉴욕주한국전쟁참전용사추진위원장, 동덕여대 이승철 교수, 조희성 큐레이터 [사진 제공=뉴욕한국문화원]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본 행사는 4월 27일까지 개최된다.

미동맹 70주년 기념 대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다큐멘터리 "백남준: 달

은 가장 오래된 TV" 특별상영회(4월) 비디오 아트계의 거장 백남준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Nam June Paik: Moon is the Oldest TV" 특별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 선댄스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계 미국인 감독 아만다 김(Amanda Kim)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백남준의 삶과 예술세계가 망라돼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유명 할리우드 배우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스티븐 연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② 링컨센터 공동주최 한국 특집 공연(3-7월) 문화원은 뉴욕 최고의 공연장

인 링컨센터와 공동으로 한국 전통음악, 퓨전창작음악, K팝,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 무용 등 다채로운 한국 공연예술의 정수를 뉴욕객들에게 선보여 뉴욕 내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홍보는 물론, 나아가 K-컬처를 통한 문화동맹으로 이어 나간다.

오는 봄 시즌에 개최되는 "K팝 댄스 나잇"(3월 31일, 5월 5일)을 시작으로 "황진이 거문고 공연"(4월 19일) 등이 예정되어 있다.

▶ ③ NYU 스카볼 센터 공동주최 한국 특집 공연(3월, 11월) 문화원은 또한 올해 처음으로 뉴욕대학교 소속 전문 공연자인 NYU 스카볼 센터와 첫 파트너십 공연을 선보인다.

3월 24-25일 한국 현대무용단체인 "브레시트 댄스 컴퍼니"의 공연과 "안무가와의 대화" 등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한국 연극단체 "성북동비둘기"의 작품 "메데이아 온 미디어"를 공동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원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NYU 스카볼 센터와의 문화예술 교류 뿐만 아니라 현지 학술계와의 교류 또한 활성화시켜 폭넓게 현지 주류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④ 한국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5-7월) 재미 한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전시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개념을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으로 확장시켜,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오는 9월 중 한국영화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

△문의: 2023년 뉴욕한국문화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홍보팀 윤보라 실무관 (b.yoon@koreanculture.org)에 게 하면 된다.



남유림 씨가 각본을 쓰고, 출연, 제작한 'A Connected Place' 포스터

남유림이 각본 쓰고, 출연, 제작한 'A Connected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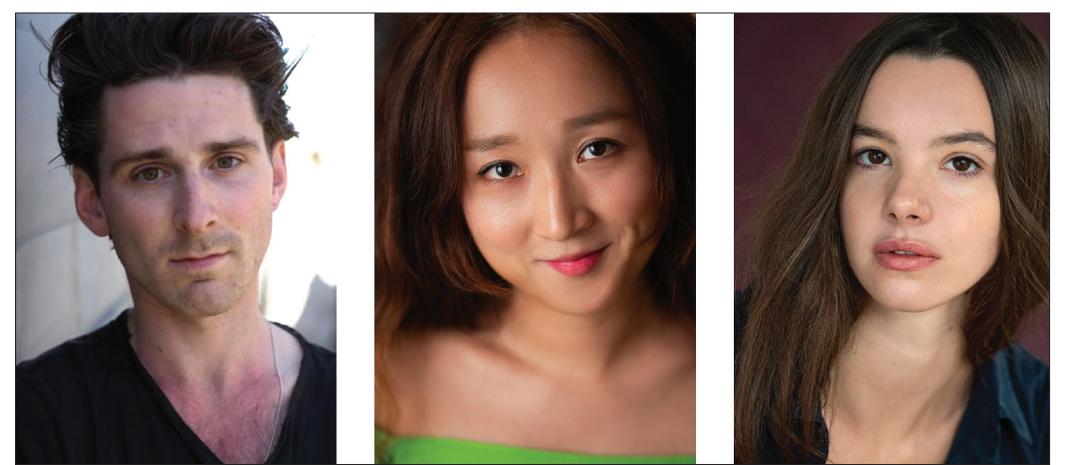
24일 Axial Theatre Company 타임스퀘어에서 연극리딩 이벤트

현재 뉴욕에서 연극, 영화배우, 극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남유림 씨가 각본을 쓰고, 출연, 제작한 'A Connected Place'가 극작가 협회 Dramatists Guild of America가 주최하는 Friday Night Footligh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xial Theatre Company의 지붕 아래 3월 24일(금) 타임스퀘어에서 연극리딩 이벤트를 갖는다.

남유림 씨는 서울 태생으로 2015년에 뉴욕으로 건너왔다.

A Connected Place는 3인극으로 현대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젊은 작가 Jane의 파트너인 Bill이 예술가로서 비관습적이고 위태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는 Jane을 끊임없이 질책하는 내용으로 초현실주의와 실험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다.

A Connected Place의 초고는



'A Connected Place' 출연진. 왼쪽부터 Tom Ryan, Youlim Nam, Allegra Venturi.

2021년 Off-off Broadway 극장 Gene Frankel Theatre와 the Clemente에서 City Artist Corps Grant 어워드를 받아 포스트 모더니스트 연출가 Sophia Treanor와 함께 성공적으로 리딩 프로덕션을

가졌던 작품이다. 이번 2023년 리딩은 새로운 연출과 배우들이 그들만의 작품 해석으로 새롭게 공연을 한다. 캐스팅은 Axial Theatre 앙상블 멤버인 Tom Ryan과 Allegra

Venturi가 참여한다. 남유림 씨도 앙상블 멤버의 일원으로서 주인공 Jane을 다시 한번 연기한다.

연출은 남유림 씨가 작년에 연출했던 공연 Never the Sinner을 연출한 Axial Theatre Company의 Artistic Director인 Cady McClain 씨가 맡아 다시 한번 함께 작품을 하게 됐다. Cady McClain 씨는 에미 어워드 3번 수상자이다

'A Connected Place'에 대한 Broadway World의 기사는 <https://www.broadwayworld.com/industry/article/Axial-Theatre-To-Present-Reading-of-A-CONNECTED-PLACE-at-The-Dramatists-Guild-20230312>에 들어가 보면 된다.

△티켓링크: <https://www.axialtheatre.org/>

△남유림씨 연락처: 646-275-4819 namyoulim@gmail.com

김종철문학상 · 지훈문학상에 황인숙 '내 삶의 예쁜 종아리'

황인숙 시인의 시집 '내 삶의 예쁜 종아리' (문학과지성사)가 제5회 김종철문학상과 제21회 지훈문학상을 수상했다. 20일 문학수첩과 나남출판이 각각 밝혔다.

김종철문학상 심사위원인 나희덕 시인은 "황인숙 시인의 천성적인 자유로움과 발랄함에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보태져 묵직한 감동을 전해준다"고 평했다.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황인숙 시인의 시집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슬픔이 나를 깨운다',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 '나의 침울한, 소중한 이어', '자명한 산책' 등을 펴냈다. 동서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수영문학상 등을 받았다.

김종철문학상은 고(故) 김종철 시인의 시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시문학을 응원하기 위해 2018년 문학수첩과 김종철시인기념사업회가 제정했다.

상금은 1천만원이며 시상식은 상반기에 열린다. 심사평과 수상 소감, 수상 시집 작품론 등은 오는 9월 출간되는 반연간 문예지 '문학수첩' 하반기호에 실린다.

지훈문학상은 시인 조지훈(1920~1968)의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탁월한 감성과 통찰로 한국 문화의 지평을 넓힌 작가에게 주어진다.

시상식은 4월 22일 경기도 포천시 나남수목원에서 열린다.



황인숙 시인 [사진 출처=문학수첩 제공]

제이슨 송 심장내과

JASON SONG, M.D., FACC, CARDIOLOGY

심장이 불편하신 분은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코로나 걸리셨던 분은 꼭! **심장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제이슨 송 심장내과

JASON SONG, M.D., FACC

- COLUMBIA UNIVERSITY B.A
- TUFTS UNIVERSITY OF MEDICINE M.D.
- ASSISTANT CLINICAL PROFESSOR OF MEDICINE AT LENOX HILL HOSPITAL
- PREVIOUS ASSISTANT CLINICAL PROFESSOR AT MOUNT SINAI HOSPITAL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1 FLUSHING, NY 11358

929-200-7072

초음파 (ECHOCARDIOGRAM)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심전도 (EKG)

부정맥 검사 (HOLTER)

진콘홈케어

HOME HEALTH CARE SERVICES

장기 간호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십니까? 진콘 홈케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 * 시니어 메디케이드 신청 및 상담
- * 홈케어 지정 및 상담
- * 각종 서류 상담
- * 메디케이드만 있으신 분도 무료 홈케어가 가능
- * HHA 자격증 및 가족케어 환영
- * 휴가비
- * Bronx 지역 HHA 환영
- * 환자 모시고 오시는 분 우대
- * 다양한 보험취급

뉴욕주에서 지정한 가족케어 홈케어 회사

한국인 직원 상담 **646-867-8082**

TKC NEWS, 한인 배우 남유림, 연극 네버 더 시너 출연, Nov 4,
2022 *TV NEWS

(Eng) Korean Actress Youlim Nam, Starring in the Play 'Never the Sinner'



TKC NEWS **한인 배우 남유림, 연극 네버 더 시너 출연**

연막 · 생애 첫 주택 36세로 3년 늦어져 ▶ 연말 소매 매출, 물가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뒷걸음질 ▶ IRS, 체납 세금 추징 · 세무감사 강화 시행



TREASURE THEATRE PRESENTS

"REMARKABLE." - THE NEW YORK TIMES

NEVER THE SINNER

TKC NEWS **오는 10일 오시닝에서 막올려**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뒷걸음질 ▶ IRS, 체납 세금 추징 · 세무감사 강화 시행 지연 ▶ 빅테크, 채용 동결 · 해고 줄이어 ▶ 파파이스

TKC NEWS, 한인 배우 남유림, 연극 네버 더 시너 출연, Nov 4, 2022 *TV NEWS



알재단 2022년 갈라... 120여명 참석 대성황

수상작가 · 미술관계자 · 애호가 한자리에... 한국 현대미술인의 밤

비영리 한인 미술인 지원 단체 알재단(대표 이숙녀)이 10월 28일 뉴욕 첼시 성 아포스톨루 교회 (Church of the Holy Apostles)에서 제19회 알재단 시상식 및 연례 갈라를 12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2년 알재단의 공모전, 펠로우십, 그랜트 및 기금을 수여하게 된 미술 작가와 재미 한인 미술 아카이브(AKAA - Archive of Korean Artists in America) 연구원, 큐레토리얼펠로우 등 12인에게 상장과 상금 총 6만 달러를 전달하는 시상식과 알재단의 2023년 아젠다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알재단의 맨해튼 할렘의 새로운 갤러리 공간 조성 및 운영 기금을 위한 베네팩 옥션 및 바자회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이날 알재단 갈라에는 그레이스 채리티 파운데이션 (Grace Charity Foundation)의 설립자 김진수 장로의 키노트 스피치를 시작으로, 2016년 알재단 프로젝트 그랜트 수상작가였던 니콜라스 오(Nicholas Oh) 씨가 등장해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알재단이 10월 28일 뉴욕 첼시 성 아포스톨루 교회(Church of the Holy Apostles)에서 제19회 알재단 시상식 및 연례 갈라를 가졌다. 사진은 수상작가 및 재단 관계자들. [사진 제공-알재단]

올해 수상자로는 ▶현대 미술 공모전 (AHL-T & W Contemporary Visual Art Award) △금상 프리실라 정 (Priscilla Jeong) △은상 전규리 (Kyuri Jeon) △동상 선 유(Sun

You), ▶아티스트 펠로우십 (AHL-Artist Fellowship)에, 민건엽 (Ken Gun Min) 임재환 (Jae Hwan Lim) 최수현(Suhyun Choi) 케일라탕게 (Kayla Tange) ▶알-앤드류 바바라 최

패밀리 프로젝트 그랜트(AHL-Andrew & Barbara Choi Family Project Grant)의 신미진(Mizin Shin) ▶알-전 패밀리 파운데이션 큐레토리얼펠로우십(AHL-Chun Family Foundation



2016년 알재단 앤드류 바바라 최 패밀리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그랜트 수상작가 니콜라스 오(Nicholas Oh)의 오프닝 퍼포먼스 [사진 제공-알재단]

Curatorial Fellowship)에 케이티 욱(Katie Yook), 이지영(Jiyoung Lee), ▶AKAA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십(AHL-AKAA Senior Research Fellowship) 수상에 고진영(Jin Young Koh) ▶알-그레이스채리티 파운데이션 펠로우십 (AHL-Grace Charity Foundation Fellowship)에 욱용신(Youngshin Yook), 황란 ▶AKAA Consultant Fund에 이지영(Jiyoung Lee)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숙녀 회장은 “올 해는 알재단 1회 수상자였던 황란 작가가 19회 알재단 갈라에서 재미 한인 아카이브(Archive of Korean Artists in America) 컨설턴트 펀드의 후원자가 되고, 내년부터는 할렘 만나 레스토랑 (Mannas

Restaurant)의 베티 박(Betty Park) 대표가 한인 작가와 할렘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전시를 후원하기로 하는 등 한인 예술인과 애호가들의 괄목할 성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특별한 행사였다. 앞으로도 알재단은 한인 예술 발전에 힘을 쓸 것이다.”고 갈라 성료 소감을 전했다.

알재단은 미국 내 한인 예술가의 발전과 한국 현대 미술을 목적으로 2003년에 창립되었으며 작가와 큐레이터를 위한 후원 기금 뿐만 아니라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현대 미술의 지지층을 넓혀가는데 앞장 서고 있다. 2022년 4월에는 뉴욕 맨해튼 할렘에 알재단 갤러리와 아카이브 룸을 개관하였다.

서울서 온 배우 남유림 씨, 美연극 'Never the Sinner' 출연

10일부터 2주간 Ossining에 있는 'Axial Theatre' 서 공연

뉴욕주에서 공연되는 미국 연극에 한국에서 온 여배우 겸 극작가 남유림 씨가 출연한다.

뉴욕 업스테이트 오씨닝(Ossining)에 있는 Axial Theatre는 10일부터 2주간 'Never the Sinner'를 공연한다. 이 연극에 Axial Theatre 멤버인 남유림 씨가 출연한다.

배우 남유림 씨는 서울 출신으로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에 메소드 액팅을 공부하러 뉴욕으로 건너와 연극, 영화 배우, 극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유림 씨가 이번에 배우로서 출연하는 연극 'Never the Sinner'는 오스카 아카데미 어워즈 Best Writing에 3번 노미네이트, 영화 007 시리즈 Skyfall, Spectre를 쓴 토니 어워즈 Best



배우 남유림 씨.

Play 수상자인 John Logan 극작가의 연극작품으로, 1920년대 시카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살인사건인 부유한 집안의 대학생 Leopold와 Loeb이 14살 소년을 살인한 사건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다.



연극 'Never the Sinner' 포스터

연출은 에미 어워즈에서 배우로서 3번 수상경력이 있는 Cady McClain, 제작은 에미 어워즈 연출부문 수상자인 Steven Willford 등이 맡았다. 캐스트 멤버 중에는 남유림 씨가 유일한 동양인이다. 남유림 씨는 “1920년 시카고에

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국 관객 뿐만 아니라 한국 관객들에게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뼈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철학적인 연극이라 믿어 뉴욕 동포들에게 이 소식을 꼭 공유하고 싶다. 한인들이 많이 관람했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연극 'Never the Sinner'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프레스 링크들인 △<https://patch.com/new-york/ossining/calendar/event/20221110/1973218/emmy-winner-cady-mcclain-directs-riveting-courtroom-drama-never-the-sinner> Broadway World: △<https://www.broadwayworld.com/rockland/article/Axial-Theatre-to-Present-NEVER-THE-SINNER-in-November-20220918> Bethany Arts Community: △<https://bethanyarts.org/calendar/never-the-sinner/Suze-Behind-the-Scenes>: △<https://www.suzeebehindthesenes.com/2022/10/new-yorks-axial-theater-presents-john.html?m=1>를 보면 된다.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직무 대행 최현승 문화홍보관)은 2022년도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 두 번째 시리즈로 '배우 송강호 특별전'을 개최한다. [사진 제공-뉴욕한국문화원]

뉴욕한국문화원, 배우 송강호 영화 특별전

11월27일까지 문화원 웹사이트 통해 무료 상영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직무 대행 최현승 문화홍보관)은 2022년도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 두 번째 시리즈로 '배우 송강호 특별전'을 개최한다.

뉴욕한국문화원은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배우 송강호의 다양한 하얀색의 연기를 담은 영화 6편을 무료 상영하고 있다.

배우 송강호는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코믹 연기뿐만 아니라 진중하고 묵직한 연기나 싸늘한 연기도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자로 유명하다.

1996년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시작으로 총 40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으며 각종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연기대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올해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영화 <브로커>로 한국 남자 배우로서는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 연기자 배우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이번 '배우 송강호 특별전'에는 <공동경비구역 JSA(2000)>, <의형제(2010)>, <관상(2013)>, <변호인(2013)>, <택시운전사(2017)>, <나랏말싸미(2019)> 등 배우 송강호가 주연을 맡아 열연한 영화가 상영된다.

온라인 한국 영화 상영회(배우 송강호 특별전)의 모든 영화는 영자막이 제공되며 문화원 홈페이지(www.koreanculture.org)에 접속하여 관람할 수 있다.

문의: 뉴욕한국문화원 212-759-9550 ext. 209

65세 이상을 위한 “메디케이드 설명회”

2023년 1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소득 상한선 대폭확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

설명회 장소
217-04 Northern Blvd Bayside Solomon 회의실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신청과 상담은 무료입니다. 예약필수
347.654.0021 / 646.371.8183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do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For accommodation of persons with special needs at meetings call 711

Production photos
of **Never The Sinner**
at Bethany Arts Community
Photo by © Donna Svennev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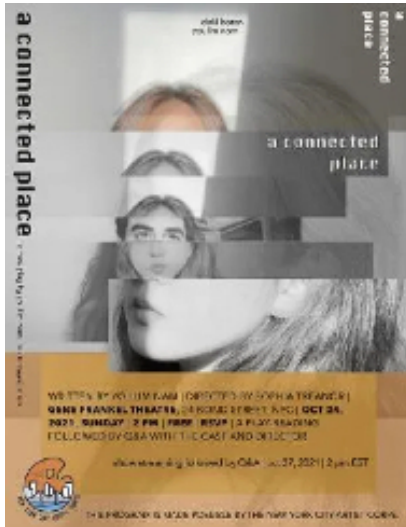




Actor and Playwright Youlim Nam Receives City Artist Corps Grant

Youlim Nam was recognized for her new play 'a connected place,' which will be born onto the stage as a staged reading at Gene Frankel Theatre.

by Chloe Rabinowitz Sep. 21, 2021



Actor and Playwright Youlim Nam is one of 3,000 New York City-based artists to receive \$5,000 through the **City Artist Corps Grants** program, presented by **The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NYFA) and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DCLA), with support from **the Mayor's Office of Media and Entertainment** (MOME) as well as **Queens Theatre**.

Youlim Nam was recognized for her new play 'a connected place,' which will be born onto the stage as a staged reading at **Gene Frankel** Theatre, the historical off-off-Broadway theatre in Noho, Manhattan, on the 24th of Oct at 2 pm.

On the surface, Nam's piece reflects a young writer Jane (played by Youlim Nam) constantly being challenged by her partner Bill (played by Delil Baran) concerning her "unconventional" and "precarious" lifestyle as an artist in the contemporary world. However, as Jane starts confronting her deep consciousness, she regains true freedom.

Director Sophia Treanor, a founding director of the **Mary Overlie** Legacy Project and Six Viewpoints Institute, sources practices from the Six Viewpoints, a postmodern philosophy that establishes a non-hierarchical value on all the materials of performance (space, shape, time, emotion, movement, and story) during the rehearsal process. Her work centers around the ways artists integrate and envision imaginative circumstances with the truth of our shared reality.

Delil Baran (Bill), a Kurd born and raised in Germany, and Youlim Nam (Jane) hailing from Seoul, Korea are joined by California-bred Sophia Treanor to share the story. Finding that their cultural diversity helps them explore the multiplicitous and prismatic truths of their generation, they are poised to offer a sensationally honest theatrical event.

Over the course of three award cycles, more than 3,000 artists will receive \$5,000 grants to engage the public with artist activities across New York City's five boroughs this summer and fall. Artists can use the grant to create new work or phase of a work or restage preexisting creative activities across any discipline.

Members of the public can participate in City Artist Corps Grants programming by following the hashtag #CityArtistCorps on social media.

City Artist Corps Grants was launched in June 2021 by NYFA and DCLA with support from **the Mayor's Office of Media and Entertainment** (MOME) as well as **Queens Theatre**. The program is funded by the \$25 million New York **City Artist Corps** recovery initiative announced by Mayor de Blasio and DCLA earlier this year. The grants are intended to support NYC-based working artists who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COVID-19.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 portion of the grant be used to support artist fees, both for the applying artist and any other artist that is engaged to support the project.

Starring Delil Baran and Youlim Nam with direction by Sophia Treanor. Showing Oct 24, 2021, at 2 pm at **Gene Frankel** Theatre in downtown Manhattan. Puls online streaming Oct 27th, 2021 at 2 pm EST on Zoom. Both are followed by Q&A with the cast and director.

All shows are FREE, RSVP required for the in-person show on Oct 24th <https://www.eventbrite.com/e/a-connected-place-tickets-172830419437> and Online streaming on Oct 27th

<https://www.eventbrite.com/e/a-connected-place-by-youlim-nam-tickets-172847871637>



Still photos of 'a connected place' in Manhattan





Manhattan Rep's Stories Film Festival Will Present ACTING IS MY DESTINY By Youlim Nam

by Julie Musbach May 14, 2019



'Acting Is My Destiny', a short film by Youlim Nam will have its screen debut at the Manhattan Rep's Stories Film Festival as an official selection in May 2019.

Nam's new piece, a one woman monologue, reflects upon the contemporary life and struggles of actors. This short film has garnered attention among Nam's excellent performance from other film festivals as well as being honored with the 'Best Actress' award at the International Independent Short Awards and 'Best Monologue' award at Actors Awards, LA.

'Acting Is My Destiny' will also be performed as a stage version this summer as a part of NYSummer Fest 2019.

Synopsis: A girl, Jessie, is trying to change the world on her sister, Jenny's **Youtube** Channel.

Starring and direction by Youlim Nam. Screening May 17th and 18th at 9 pm.

Box office and details linked below.

www.manhattanrep.com/tickets-for-stories-film-festival

단편 '연기는 내운명', '액터스 어워즈 LA' 최우수 모노로그상

2018-12-12 (수)

이메일 f t g

▶ 뉴욕 배우 남유림 씨 제작·시나리오·연출·출연



뉴욕에서 활동하는 배우 남유림(사진)씨가 제작, 시나리오, 연출, 출연한 단편영화 '연기는 내운명'(Acting is My Destiny)이 '액터스 어워즈 LA'(Actors Awards LA)에서 배우로서 최우수 모노로그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온라인 영화제 '탑 단편영화제'(Top Shorts Film Festival)에서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가기도 한 작품이다.

뉴욕에서 아이폰으로만 촬영했고 편집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에디터 '지유정'씨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액터스 어워즈 LA'(www.theactorsawards.com)는 2년전에 생긴 새로운 월별 온라인 페스티벌로 인디필름계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에미상에 6차례나 노미네이트된 할리웃 감독 제프 멜만이 심사위원중 한명이다. 남씨는 올해 '아메리칸 필메틱 아트 어워즈'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단편 코미디 영화 '더 밉글(The Mingle)'에도 출연했다.

타이 쿠퍼 감독의 '더 밉글'은 칸·선댄스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된 작품으로 남씨는 주인공 남성이 소개팅을 하는 네 명의 여성 중 한 명인 '세레나'로 나온다.

[TRANSLATION]

WON BEST MONOLOGUE AT 'ACTORS AWARDS LA'

NYC-BASED ACTOR YOULIM NAM PRODUCED, WROTE, DIRECTED STARRED IN THE SHORT FILM 'ACTING IS MY DESTINY'

AN NYC-BASED ACTOR YOULIM NAM (PHOTO) RECEIVED 'BEST MONOLOGUE' WITH HER SHORT FILM 'ACTING IS MY DESTINY', WHICH SHE PRODUCED, WROTE, DIRECTED, AND STARRED IN.

THE FILM WAS ALSO MADE TO THE SEMI-FINALS IN THE ONLINE FILM FESTIVAL 'TOP SHORTS FILM FESTIVAL'.

IT WAS FILMED ON IPHONE IN NEW YORK CITY, AND A KOREAN-BASED FILM EDITOR YUJEONG JI DONATED HER TALENT FOR THE POST-PRODUCTION.

ACTORS AWARDS LA

(WWW.THEACTORSAWARDS.COM) IS A NEW EMERGING MONTHLY ONLINE FESTIVAL, WHICH BEGAN TWO YEARS AGO, AND IS IN THE LIMELIGHT AMONG INDIE FILMMAKERS.

'TOP SHORT FILM FESTIVAL' IS ALSO A NEWLY ONLINE FESTIVAL THAT STARTED FIVE YEARS AGO, AND IS REPUTABLE IN THE INDIE FILM INDUSTRY. A HOLLYWOOD DIRECTOR JEFF MELMAN, SIX TIMES EMMY NOMINEE, IS ONE OF THE JUDGES.

NAM ALSO STARRED IN THE COMEDY SHORT FILM 'THE MINGLE', WHICH WON A GRAND JURY AWARD AT THE 'AMERICAN FILMATIC ARTS AWARDS' THIS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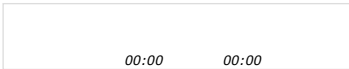
THE DIRECTOR TY COOPER'S 'THE MINGLE' HAS ALSO BEEN SUBMITTED AT THE CANNES AND SUNDAN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NAM PORTRAYED 'SERENA', ONE OF THE FOUR BLIND DATES.



08-07-18 남유림 연극배우겸 작가와 함께~

kradio 투투가 만난 사람들 0 1,525

2018.08.08 14:46



뉴욕에서 활동중인 연극배우 겸 작가 남유림 씨와 함께 오늘 투투쇼 꾸며 보았어요.

뉴욕에 온지 3년만에 뉴욕 단편 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하고 주인공 역할까지 소화했습니다.

오는 9월 뉴욕 여름 페스티벌 시어터 페스티벌에 새 단편으로 공연을 앞두고 있는 남유림 작가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 다시듣기 꼭꼭 클릭해주세요

[TRANSLATION]

08-07-18 With YOULIM NAM, AN ACTRESS AND PLAYWRIGHT~

TODAY, WE INVITED NYC-BASED ACTRESS AND PLAYWRIGHT YOULIM NAM.

HER SHORT PLAY, AS WELL AS SHE PLAYS THE LEAD ROLE, WAS SELECTED BY THE NEW YORK THEATRE FESTIVAL, THIS ACCOMPLISHMENT HAPPENED ONLY 3 YEARS AFTER SHE MOVED TO NYC FROM KOREA.

WE LOOK FORWARD TO YOULIM NAM'S FUTURE AND HER SHOW AT THE NY THEATER FESTIVAL IN SEPTEMBER.

TO LEARN MORE, PLEASE LISTEN TO THIS EPISODE.



극작가 겸 배우로 활동하는 유학생 **남유림씨**

첫 단편 작품 '28+2' 로 관객들과 호흡 시나리오부터 주인공 역할까지 소화 9월에는 두 번째 작품 '시계' 무대에

“훗날 브로드웨이 꿈나무들의 창작·연기 활동을 지원하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20대 꿈 많은 한인 남유림(29)씨가 뉴욕에서 극작가 겸 연극 배우로 데뷔했다.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학과를 졸업하고 3년 전 뉴욕에 온 남씨는 뉴욕의 단편 연극제인 '2018 원 액트 페스티벌 (One Act Festival)'에 생애 첫 단편 작품인 '28+2'를 출품, 주인공 역할까지 소화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무대에 올라온 48개 작품 가운데 하나인 그의 작품은 최종 14개 작품을 선정하는 결승 진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질 정도로 내용과 연기에서 호평 받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더 시크릿'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남씨는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내용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의미가 크다”며 “무대에서 내가 직접 쓴 작품을 몸소 연기하는 경험은 설레고도 짜릿하다”고 말했다.
남씨가 출품한 '28+2'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에서 밀레니엄 세대가 어떻게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가를 조명한 작품이다. 서울에서 온 주인공 여성이 새해 첫날 한국 나이로 30세가 되지만 타민족 친구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작품은 앞선 6월 맨해튼의 '레퍼토리' 극장에서 소케이스로 2회 공연되며 연극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작품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남씨는 “뉴욕에 내재된 다양성의 단면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의

고충과 아픔, 우정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아무래도 제가 겪은 경험 중심으로 전개하다 보니 진솔함이 묻어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이번 무대에서 희망을 얻은 그의 최종 목표는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진출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늦은 시기에 브로드웨이 배우의 꿈과 열정을 갖고 왔지만 다양한 무대에서 경력을 쌓으며 실력을 연마하고 싶다고. 실제로 그는 뉴욕에서 단편 코미디 영화 '더 밉글(The Mingle)'에도 출연했다. 타이 쿠퍼 감독의 이 영화는 칸·선댄스·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으로 남씨는 주인공 남성이 소게팅을 하는 네 명의 여성 중 한 명인 '세레나' 역할을 맡았다.
현재 남씨는 오는 9월 연극 공연 준비로도 분주하다. 뮤지컬·장편·단편 부문으로 경쟁하는 '뉴욕 여름페스트 시어터 페스티벌 (newyorktheaterfestival.com/a-watch)'에서 새 단편 작품 '시계(A WATCH)'로 9월 20·21·23일 3차례 공연하는 그는



25일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서 만난 20대 한인 극작가 겸 배우 남유림씨가 첫 작품을 설명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욕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그렸다”며 “꼭 수상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남씨는 “직접 쓴 시나리오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셰익스피어 연극과 같은 훌륭한 작품을 아시안

의 시각으로 재탄생시켜 무대에 올리고 싶다”며 “또 타민족 친구들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장르 개척에도 앞장 서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브로드웨이 진출의 꿈을 키우는 배우나 연출자, 극작가를 위한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남씨는 “공연 연습을 하는 동안 리허설 공간 대여나 각종 페스티벌 참가비 마련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많이 부딪혔다”며 “이 분야에 자리잡게 된다면 재능 있는 이들과 좋은 작품들이 최대한 많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남씨는 2015년 뉴욕 유학길에 올라 '스텔라 애들러 스튜디오 오브 액팅(Stella Adler Studio of Acting)'에서 여름 집중 연기 과정을 마치고 HB 스튜디오에서 3년간 연기 및 극작 공부를 하고 있다.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졸업 후엔 대학로 소극장에서 활동했으며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글·사진=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TRANSLATION]

YOULIM NAM, AN ACTRESS, PLAYWRIGHT, AND INTERNATIONAL STUDENT

HER FIRST SHORT PLAY '28+2' FROM PLAYWRITING TO PLAYING THE LEAD ROLE IN SEPTEMBER, THE SECOND PLAY 'A WATCH' WILL BE ON STAGE

(YOULIM'S PORTRAIT - RIGHT)
YOULIM NAM, A 29-YEAR-OLD KOREAN ACTRESS, AND PLAYWRIGHT, WHOM I MET IN KOREATOWN (32ND STREET IN MANHATTAN) ON THE 25TH, EXPLAINS HER FIRST WORK CHEERFULLY.

"I WANT TO BE A WONDERFUL VETERAN ARTIST WHO WILL SUPPORT CREATIVE WORKS FOR YOUNG BROADWAY DREAMERS."

AN AMBITIOUS KOREAN YOULIM NAM (29) MADE HER DEBUT AS A PLAYWRIGHT IN NEW YORK CITY. NAM, WHO GRADUATED FROM DONGDUK WOMEN'S UNIVERSITY (MAJORING IN PERFORMING ARTS), MOVED TO NEW YORK CITY THREE YEARS AGO. SHE PREMIERED HER FIRST SHORT PLAY '28+2' AT THE '2018 ONE-ACT FESTIVAL', AS WELL AS PLAYING THE LEAD ROLE. HER WORK WAS MADE INTO ONE OF THE 48 PLAYS OUT OF OTHER COMPETITIVE SUBMISSIONS. THE SHOW HAS BEEN ACCLAIMED FOR ITS STORY AND PERFORMANCE AND IT HAS A HIGH POSSIBILITY OF ENTERING THE FINAL ROUND OF THE FESTIVAL.

'28+2' PRESENTED BY NAM REVEALS HOW MILLENNIAL GENERATIONS IN NEW YORK CITY, WHERE VARIOUS ETHNICITIES AND CULTURES COEXIST, OVERCOME THEIR CULTURAL DIFFERENCES AND CONFLICTS, AND LIVE IN HARMONY. THE MAIN CHARACTER FROM SEOUL BECOMES 30 YEARS OLD IN KOREAN AGE ON NEW YEAR'S EVE, BUT HER AMERICAN FRIEND DOESN'T UNDERSTAND THE KOREAN AGE CALCULATION METHOD, FROM WHICH THE SHOW STARTS. THIS PLAY WAS ALSO RECOGNIZED AS A SENSATION IN THE THEATRICAL WORLD AS IT WAS PERFORMED TWICE AS A SHOWCASE AT THE MANHATTAN REPERTORY THEATRE IN JUNE.

"I WANTED TO TELL A STORY ABOUT THE DIVERSITY OF NEW YORK CITY AND THE YOUNG GENERATION'S AGONY, PAIN, AND FRIENDSHIP FROM VARIOUS ANGLES," SAYS NAM. "I THINK THE REASON WHY THE STORY WAS GENUINE IS THAT IT WAS COMING FROM MY LIFE EXPERIENCE IN THE CITY."

HER ULTIMATE GOAL IS TO BE ON THE BROADWAY STAGE. SHE RELOCATED HERE AT A RELATIVELY LATER AGE THAN THE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BUT SHE'S READY TO BUILD HER CAREER IN MANY DIFFERENT STAGES. SHE ALSO ACTED IN THE SHORT COMEDY FILM 'THE MINGLE' IN NEW YORK CITY. THE DIRECTOR TY COOPER'S 'THE MINGLE' HAS ALSO BEEN SUBMITTED AT THE CANNES AND SUNDANCE, AN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NAM PORTRAYED 'SERENA', ONE OF THE FOUR BLIND DATES.

CURRENTLY, NAM IS ALSO BUSY PREPARING FOR ANOTHER SHOW IN SEPTEMBER. HER NEW SHORT PLAY 'A WATCH' WILL BE PERFORMED THREE TIMES ON THE 20TH, 21ST, AND 23RD OF SEPTEMBER AT THE NEW YORK SUMMER THEATER FESTIVAL (NEWYORKTHEATERFESTIVAL.COM/A-WATCH). IT'S A COMPETITION FOR MUSICALS, FULL-LENGTH AND SHORT PLAYS. "IT'S ABOUT STRUGGLING YOUNG NEW YORKERS. I'D LOVE TO WIN THE AWARDS." SHE SAYS.

"I CERTAINLY HAVE A PASSION FOR WRITING MY OWN PLAYS, BUT I AM ALSO EAGER TO EXPLORE MANY OTHER GREAT PLAYS SUCH AS SHAKESPEARE WITH MY ASIAN PERSPECTIVE AND PUT THEM ON THE STAGE," SAYS NAM. "I WANT TO LEAD A MOVEMENT BY COLLABORATING WITH PEERS FROM DIFFERENT CULTURES AS WELL."

SHE FURTHERMORE SAYS SHE WANTS TO SET UP A SUPPORT SYSTEM FOR ACTORS, DIRECTORS, AND PLAYWRIGHTS WHO WANT TO WORK ON BROADWAY.

NAM SAYS, "WHILE PREPARING THE PRODUCTION, I FACED A LOT OF FINANCIAL DIFFICULTIES SUCH AS RENTING REHEARSAL SPACE AND PARTICIPATION FEES TO FESTIVALS." ADDING THAT "WHEN I GET SETTLED IN THE INDUSTRY, I WANT TO HELP OTHER TALENTED ARTISTS, SO THEY CAN PRODUCE THEIR SHOWS WITHOUT FINANCIAL BURDEN."

AFTER COMPLETING A SUMMER INTENSIVE COURSE AT STELLA ADLER STUDIO OF ACTING, SHE IS CURRENTLY STUDYING AT HB STUDIO FOR THREE YEARS. AFTER GRADUATING FROM DONGDUK WOMEN'S UNIVERSITY (MAJORING IN PERFORMING ARTS), SHE PERFORMED AT KOREAN OFF-BROADWAY THEATERS IN DAEHAK-RO, AND TAUGHT YOUNG STUDENTS IN THE ACTING ACADEMY.